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75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 2:1~49)

“꿈... 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걱정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 폐하...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간밤에 꾸 꿈 때문에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안 되겠어, 마술사든 점쟁이든 주술사든
내 꿈을 풀어줄 자를 데려오거라!”**

“예, 예이~~”

**꿈풀이를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금세 왕궁으로 불러 왔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꿈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개운~하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나에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보거라.
내 꿈의 내용을 맞이지 못하면 너희의 목숨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사는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대신, 내 꿈을 알아맞히는 자에게는
크나큰 선물과 명예를 줄 것이다. 알겠느냐?”**

왕의 말에, 주술사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 꿈의 내용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헤, 헤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저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더시온지...
저희가 기가 막히게 풀어드릴 수 있사온대..”**

**“시끄럽다 네 이놈!
보아하니 네 녀석들이 시간을 벌려고
죄를 부리는구나.
속임수 쓸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먼저 말해보라.
그럼 내가 너희의 꿈풀이 실력도 믿을 것이다!”**

**“하오나 왕이시여 왕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옵니다...
저희가 신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주술사를 데려와도
왕의 꿈을 먼저 맞힐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주술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실력도 없이 입만 나불대는 자들은 필요 없다!
겉으로만 지혜롭다 말하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자들, 저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거라!”**

왕의 무서운 명령에 왕의 경호대장인
‘아리옥’ 장군이, 꿈풀이를 할 줄 아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술사들 뿐 아니라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표적이 되어서 급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붙잡혀 갈 위기에 처했죠.
영문도 모른 채 말이에요!

**“너희 네 사람도 순순히 따라와라!
왕의 명령이다!”**

**“아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똑똑하다 하는 자들 중 아무도 왕의 꿈을
맞히지 못했다. 그러니 어서 따라와!”**

**“자, 잠시만요! 아리옥 장군, 저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왕의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리옥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니엘을 쳐다봤어요.

**“좋다. 허나 빨리 답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이야.
안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자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에헴.”**

아리옥이 돌아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왕밖에 모르는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았죠.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은 꿈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렇게 알고 싶었던 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음 날, 다니엘이 아리옥 장군을 따라
씩씩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폐하, 유대인 포로 중에 폐하의 꿈을
맞히겠다는 자가 있어 데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잔꾀 부리지 않고
내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할 수 있다~이것이냐?”**

그러자 다니엘이 당차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의 꿈을 맞히는 건.
그 어떤 주술사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왕께서는 꿈속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지요.”**

**“왕께서 신상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는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상의 다른 부분들도 모조리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하지만 날아온 돌은 점점 커져 큰 산이 되더니
온 땅을 덮었사옵니다.”**

**근엄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어요.**

**“마, 맞다... 너의 말이 정확히 맞아!
그래서, 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이겠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께 강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훗날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왕의 나라만큼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으로 된 부분, 놋으로 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다음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말씀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쇠처럼 강할 것이나
나중에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오... 그럼 갑자기 날아온 그 돌은 무엇이냐?
온 땅을 뒤엎게 될, 그 돌 말이다!”**

**“그 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릴 나라이지요.
온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나라이옵니다...!”**

**다니엘의 막힘 없는 해몽에 느부갓네살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의 비밀을 네가 정확히 풀었구나.
분명 너의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심에 틀림없다.
내 너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며,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위기에서 벗어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또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나라의 관리가 되었죠.

목숨을 잃을 뻔한 수많은 사람들도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는
미칠 수 없다는걸 바빌로니아 땅에 보여준 거죠.